



독일 교통 · 건설 · 도시개발부

(Das Bundes 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 BMVBS)의 조직과 임무

정보신청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I. 독일 교통 · 건설 · 도시개발부의 주요 임무와 구성

1. 기본관할업무

독일의 경우 교통, 건설과 도시개발의 임무는 한 개의 교통 · 건설 · 도시개발부(BMVBS)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교통 · 건설 · 도시개발부는 연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투자부문이다. 여기에 연방의 교통인프라와 건축인프라 건설의 모든 관할권이 집중되어 있다. 즉, 연방 장거리 교통망 도로(Bundesfernstraße),¹⁾ 철로(鐵路), 수로(水路), 도시건설, 도시개발과 공간(대지)이용계획(Raumordnung)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부(部)는 현재 독일 각부(部) 중에서도 뛰어난 혁신부

로서 교통기술과 건축업의 자극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항공교통, 위성내비게이션, 새로운 동력장치(예, Hybrid엔진 등)와 새로운 자동차연료(예, 수소연료 등), 에너지 절약형 건축양식의 개발에 있어 교통 · 건설 · 도시개발부의 전문가들이 양질의 대강 조건(Rahmenbedingung)을 제공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헌법에 따라 연방정부에 권한이 있는 한 교통 · 건설 · 도시개발부는 전체 교통제도(체계, 구성, 업무 등)를 총괄하고 있다. 그 업무 범위는 철도사무, 도로교통사무, 내륙수운(內陸水運)사무, 해양교통사무, 항공교통사무, 도로건설사무, 수로(水路)사무와 기상통보사무를 망라하고 있다.



1) 연방 장거리 교통망 도로(Die Bundesfernstraße)는 독일 고속도로(Bundesautobahn)와 독일 국도(Bundesstraße)의 총칭이다.

2. 수도(首都)이전 관련업무

교통·건설·도시개발부는 도시건설, 주거제도, 공간(대지)이용계획과 건설제도의 영역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관할권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본 지역의 게마인데(Gemeinde)²⁾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교통·건설·도시개발부장관³⁾은 베를린으로의 수도이전과 본 지역 평준화보상을 위한 연방정부의 전권대리인(Beauftragter)이다. 이러한 재정지원은 구 수도(首都)였던 본 지역의 상대적 박탈을 위한 보상조치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1994년 6월 29일에 체결된 연방의회이전과 연방정부의 기능이전에 관한 협정과 1994년 6월 30일에 체결된 수도(首都)협약(Hauptstadtvertrag)에 따라 베를린 주(州)에 대해 정부기능이전을 감행하였다.

3. 구(久)동독지역 관련업무

또한 교통·건설·도시개발부장관은 통일로 인해 새로이 독일 연방에 편입된 구 동독지역의 주(Land)들을 위한 연방정부의 전권대리인이기도 하다. 이 임무는 장래에도 계속 존재할 독일분단의 결과로 인한 피해에서 발생한다. 새로운 주들의 특별이익의 문제는 여러 정치영역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구 동독지역의 올바른 발전의 관

심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전문지식과 전문능력을 잘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정책 및 노동시장정책과 연구개발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주들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른 연방 장관(Bundesminister)뿐만 아니라 여러 주정부(Landesregierung)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4. 소재지와 구성 및 소속하위관청(Nachgeordnete Behörde)

현재 교통·건설·도시개발부는 그 소재지가 베를린과 본에 분산되어 있으며, 총 1,6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소속 하위관청(nachgeordnete Behörde)들과 함께 독일의 경제성장과 사회단결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소속 하위관청은 다음과 같다.

연방건축시설물·공간(대지)이용청(Bundesamt für Bauwesen und Raumordnung), 연방화물교통청(Bundesamt für Güterverkehr), 연방해양선박교통·수로학(水路學)청(Bundesamt für Seeschifffahrt und Hydrographie), 연방수리학(水理學)청(Bundesanstalt für Gewässerkunde), 연방도로제도시설물청(Bundesanstalt für Straßenwesen), 연방수상건축청(Bundesanstalt für Wasserbau),



- 2) 독일의 최소단위 행정구역이다. 한국의 시·읍·면에 해당한다.
3) 현재 교통·건설·도시개발부 장관은 Wolfgang Tiefensee이다.



연방철도재산(Bundeseisenbahnvermögen), 연방항공사고조사처(Bundesstelle für Flugunfalluntersuchung), 연방해양사고조사처(Bundesstelle für Seeunfalluntersuchung), 독일기상청(Deutscher Wetterdienst), 연방철도청(Eisenbahn-Bundesamt), 연방자동차운전청(Kraftfahrt-Bundesamt), 연방항공청(Luftfahrt-Bundesamt), 고급기술행정업무를 위한 상급시험청(Oberprüfungsamt für den höheren technischen Verwaltungsdienst), 중부지방 수상운행 및 선박운항감독(Wasser-und Schifffahrtstaktion Mitte), 북부지방 수상운행 및 선박운항감독(Wasser-und Schifffahrtstaktion Nord), 북서지방 수상운행 및 선박운항감독(Wasser-und Schifffahrtstaktion Nordwest), 동부지방 수상운행 및 선박운항감독(Wasser-und Schifffahrtstaktion Ost), 남부지방 수상운행 및 선박운항감독(Wasser-und Schifffahrtstaktion Süd), 남서부지방 수상운행 및 선박운항감독(Wasser-und Schifffahrtstaktion Südwest), 서부지방 수상운행 및 선박운항감독(Wasser-und Schifffahrtstaktion West).

II. 독일 교통·건설·도시개발부의 각 국(局-Abteilung)의 주요임무

현재 교통·건설·도시개발부는 산하에 9개의 국(局-Abteilung)을 두고 있으며 이들 각 국 밑에는 21개의 과(課-Unterabteilung)를 두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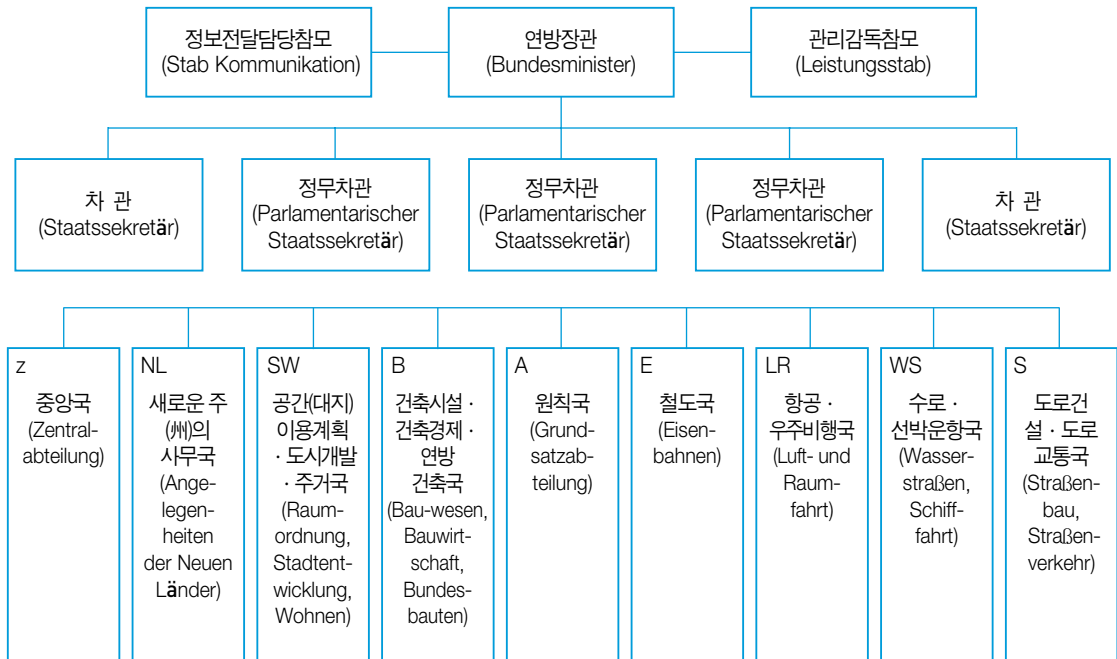
- ① 중앙국(Die Zentralabteilung-Z)은 교통·건설·도시개발부를 위한 그의 공무범위의 직무수행자이다. 중앙국은 다른 각국(各局)을 위한 행정사무를 수행한다.
- ② 새로운 주(州)의 사무국(Angelegenheiten der Neuen Länder-NL)은 독일통일로 인해 새로이 편입된 구 동독지역의 주(Land)들의 불평등해소와 발전, 재정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 ③ 공간(대지)이용계획·도시개발·주거국(Raumordnung, Stadtentwicklung, Wohnen-SW)은 주거권과 주택정책의 원칙문제, 주택보조금(Wohngeld), 주택건설촉진, 임대차 및 소유재산정책과 건설경제 및 주택경제의 문제를 다룬다.
- ④ 건축시설, 건축경제 및 연방건축국(Bauwesen, Bauwirtschaft und Bundesbauten-B)은 주택제도의 원칙문제와 국내적·국제적 도시건축정책, 유럽건설전체의 조화, 건설기술, 건설연구 등과 연방건축(Bundesbauten)에 관해서 담당하고 있다.
- ⑤ 기초국(Grundsatzabteilung-A)의 임무는 정책의 근본적 개념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고 그것의 실천을 돕는데 있다.
- ⑥ 철도국(Eisenbahnen-E)은 철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하고 있다.
- ⑦ 항공·우주비행국(Luft-und Raumfahrt-LR)은 항공법, 항공안전, 공항, 우주비행, 항공기술, 기상통보서비스 등과 환경보호문제를

관할하고 있다. 현재 유럽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항공교통의 증가에 대비해서 효율적이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항공교통의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 ⑧ 수로(水路)·선박운항국(Wasserstraßen, Schifffahrt-WS)은 7,300km에 달하는 독일 수로(水路)에 관한 사항, 수로학(水路學), 선박운항의 안전, 선박항해경찰, 해양환경 보호, 내륙수운관련사항의 전반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 ⑨ 도로건설·도로교통국(Straßenbau, Straßenverkehr-S)은 현재 약 11,427km에 이르는 독일 고속도로(Bundesautobahn)와 약 41,386km에 이르는 독일 국도(Bundesstraßen)에 관한 도로건설계획, 도로건설기술, 도로의 유지보수, 자금조달, 도로교통에 관한 전반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도로건설은 현재 환경의 관심사와 도시의 주거공간의 이해를 고려하여 점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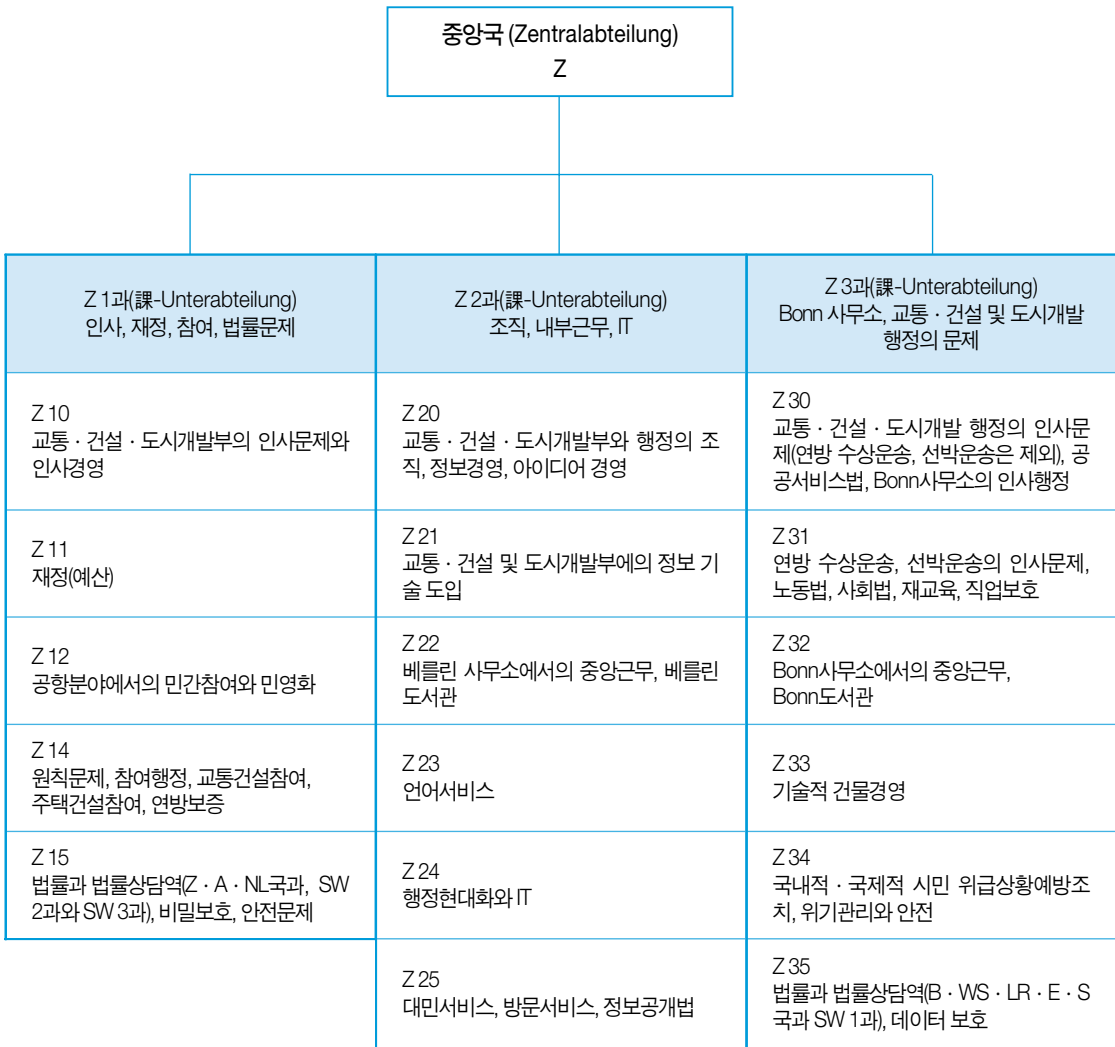
III. 독일 교통·건설·도시개발부의 상부 조직도⁴⁾



4) 2007년 2월 1일 현재.

IV. 독일 교통 · 건설 · 도시개발부의 하부 조직도⁵⁾

1. 중앙국(Zentralabteilung-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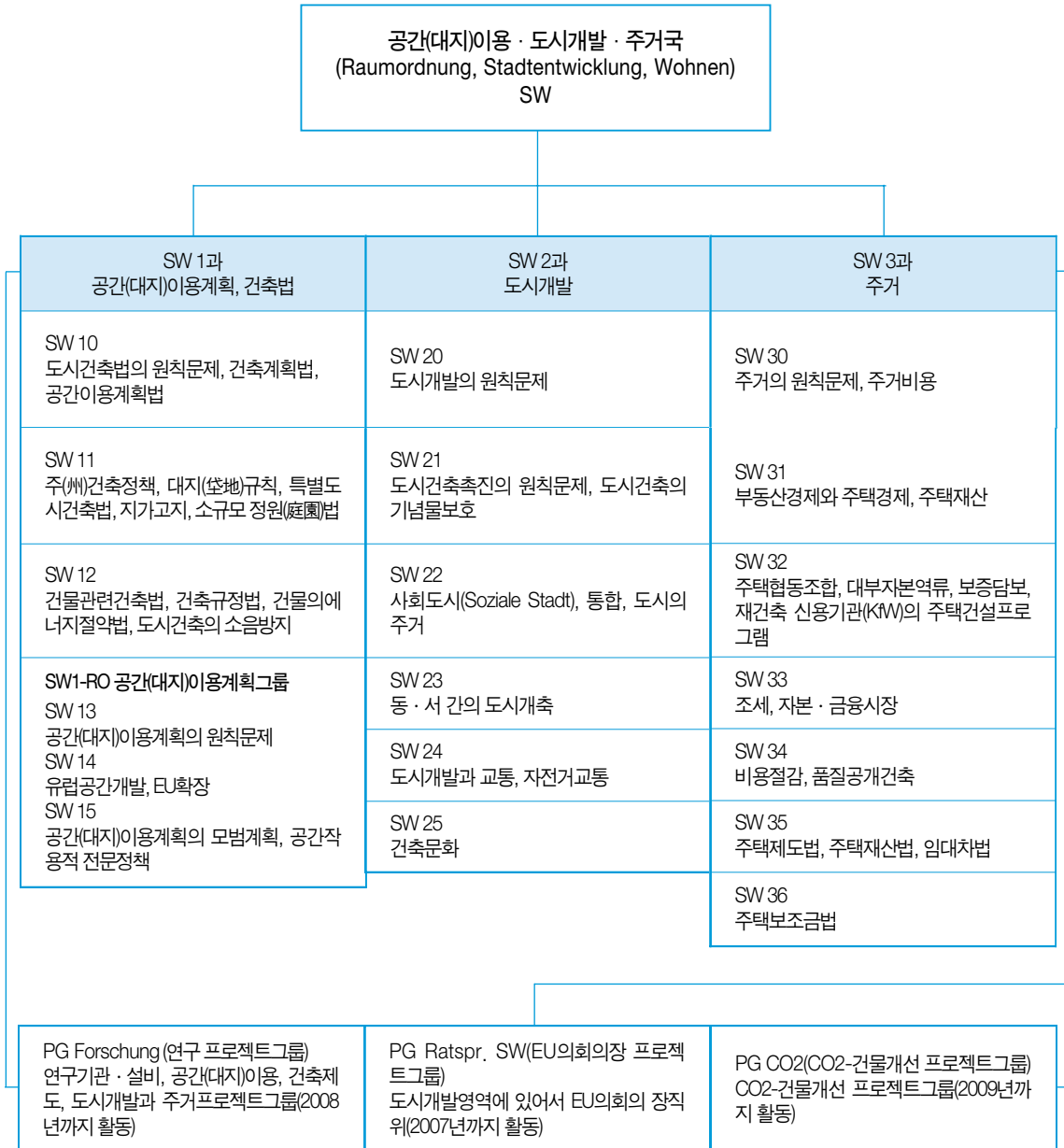


5) 2007년 2월 1일 현재.

2. 새로운 주(州)의 사무국(Angelegenheiten der Neuen Länder-NL)

새로운 주(州)의 사무국 (Angelegenheiten der Neuen Länder) NL	
NL 1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금융·재정정책	NL 2과 혁신과 소재지(Standort)개발, 모범계획
NL 10 경제정책의 원칙문제	NL 20 투자개발과 소재지(Standort)개발
NL 11 재정정책과 조세정책	NL 21 혁신, 연구, 기술
NL 12 중산층 촉진프로그램	NL 22 주(州)의 공간, 삶의 대비
NL 13 사회정책의 원칙문제	NL 23 모범영역
NL 14 노동·사회정책의 미래	NL 24 프로젝트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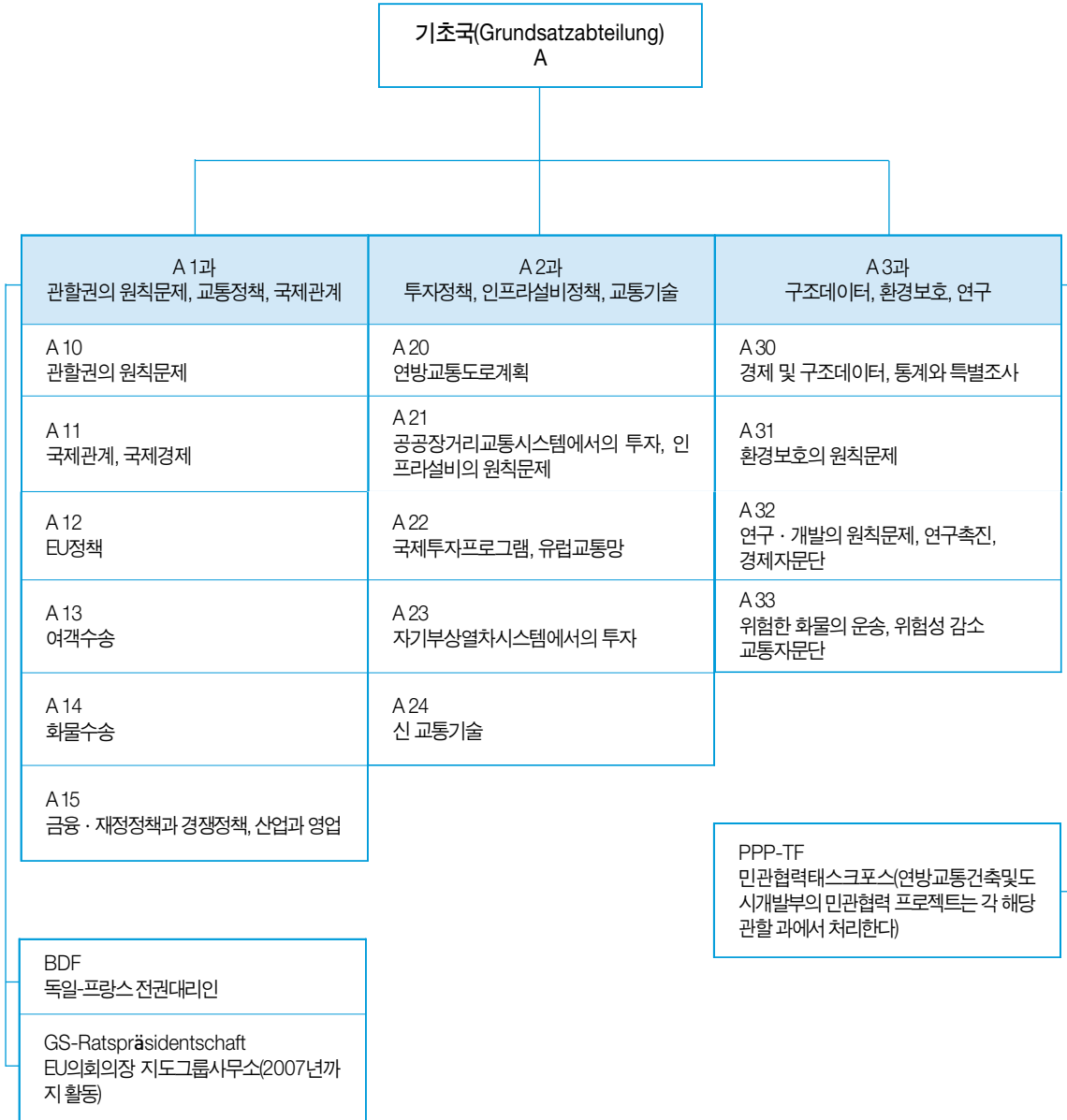
3. 공간(대지)이용계획 · 도시개발 · 주거국 (Raumordnung, Stadtentwicklung, Wohnen-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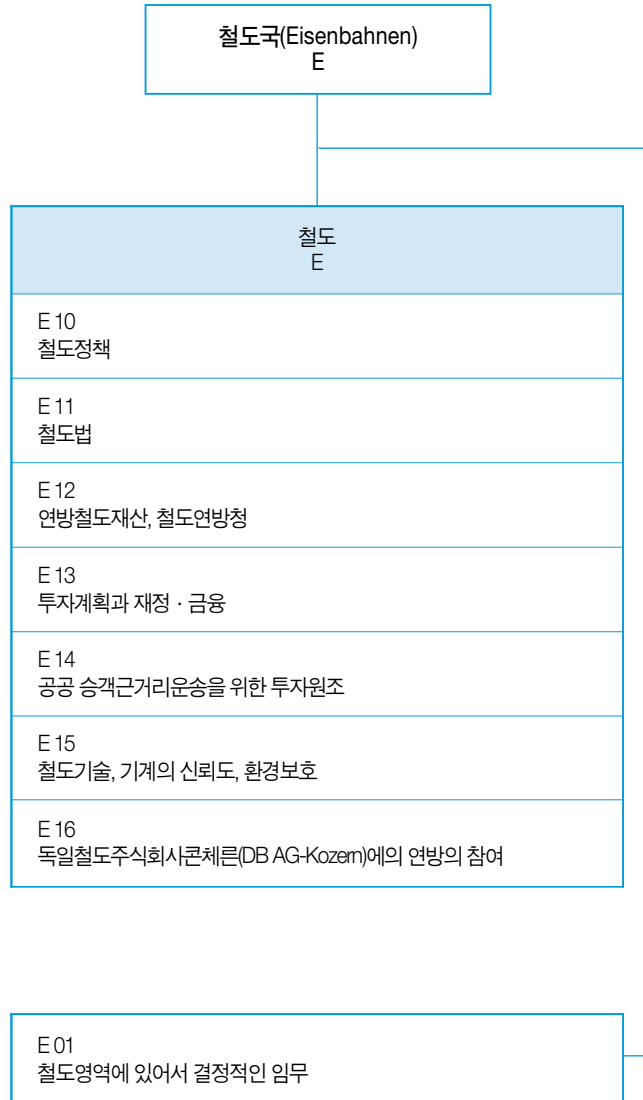
4. 건축물 · 건축경제 · 연방건축국(Bauwesen, Bauwirtschaft und Bundesbauten-B)

건축물 · 주택경제 · 연방건축국 (Bauwesen, Bauwirtschaft und Bundesbauten) B	
B 1과 건축제도, 건축경제	B 2과 연방건축(Bundesbauten)
B 10 건축제도의 원칙문제	B 20 연방건축물 I, 아래 영역에 있어서의 건축임무: 연방수상청, 연방내무부, 연방법무부, 연방재정부, 연방경제기 술부, 연방교통건축및도시개발부, 연방가족 · 노령자 · 부인 · 청소년부,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회계감사원
B 11 기술적 건축결정에 있어 유럽전체의 조화	B 21 연방건축물 II, Bonn에서의 건축임무: 연방영양 · 농업 · 소비자보호부, 연방건강부, 연방환경 · 자연보호 · 원자로안전부, 연방국방부, 연방경제협력 · 발전부, 독일UN
B 12 건물과 시설의 기술, 신개발 연료사용을 위한 기술	B 22 연방건축물 III, 아래 영역에 있어서의 건축임무: 연방예술 · 미디어전권대리인, 연방노동 · 사회부, 연방교육 · 연구부, 문화건축, 외국군대를 위한 건축
B 13 건축엔지니어제도, 지속적 건축, 건축 연구, 건축정책목표	B 23 연방건축물 IV: 외국에서의 건축임무, B2과의 조정임무
B 14 에너지 효율, 건물영역에 있어서 기후보호	B 24 연방건축물 V, 베를린에서의 건축임무: 연방대통령청, 연방수상청, 대외청, 베를린 연방건축회사의 작업임원, 일반적 수도(首都)개발
B 15 금융 · 재정정책과 경쟁정책, 산업과 영업	B 25 연방건축물 VI: 연방참의원(Bundesrat)과 베를린소재 연방각부의 건축임무, 성(城)건축
B 16 건축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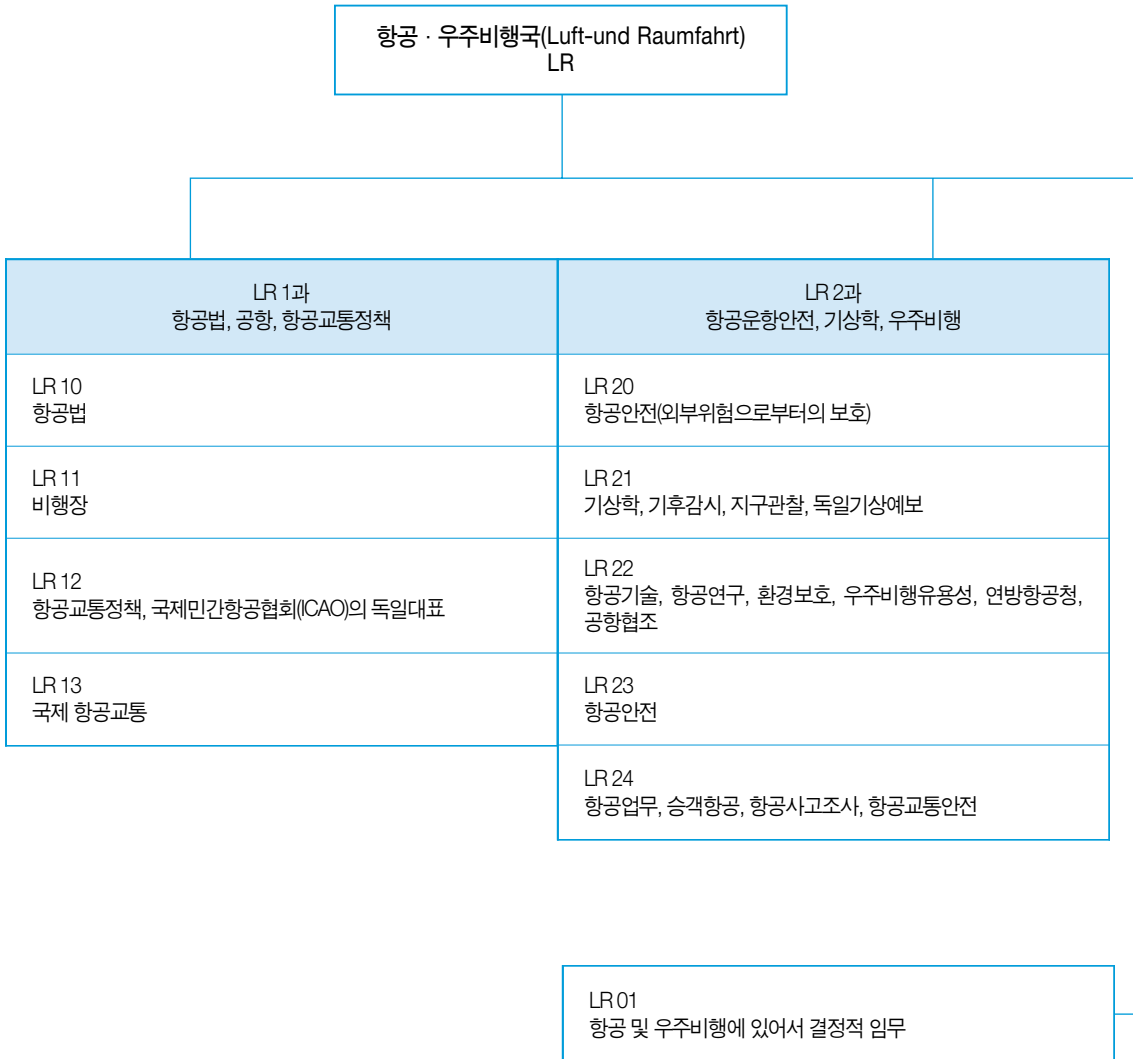
5. 기초국(Grundsatzabteilung-A)



6. 철도국(Eisenbahnen-E)



7. 항공 · 우주비행국(Luft-und Raumfahrt-LR)



8. 수로(水路) · 선박운항국(Wasserstraßen, Schifffahrt-WS)

수로(水路) · 선박운항국
(Wasserstraßen, Schifffahrt)
WS

WS 1과 수로(水路)	WS 2과 선박운항
WS 10 수로계획과 재정	WS 20 국제 · EU해상교통정책, 해상교통법
WS 11 내륙수로의 경영	WS 21 해상선박정책, 해양경제, 항구
WS 12 해안 수로의 경영	WS 22 선박운항경찰, 해상위기상황예방조치, 연방해상사고조사처
WS 13 기술, 환경보호, 수리학(水理學)	WS 23 교통규정, 항해학, 기술, 선원
WS 14 측량, 대지(垜地)제도, 조달제도	WS 24 해양환경보호, 연방 해상선박운항 및 수로학(水路學)청
WS 15 연방수로법	WS 25 내륙수운정책, 경제와 법
WS 16 연방수상 · 선박운항행정의 조직, 통제	WS 26 내륙수운의 안전과 환경보호

WS 01
수로와 선박운항영역에 있어서 결정적 임무

AG WS-ATS
선박운항, 외부위험으로부터의 보호

9. 도로건설 · 도로교통국 (Straßenbau, Straßenverkehr-S)

도로건설 · 도로교통국 (Straßenbau, Straßenverkehr) S		
S 1과 도로계획, 법과 기술	S 2과 도로건설, 유지보존과 재정 · 금융	S 3과 도로교통
S 10 도로망계획, 전문정보시스템	S 20 브레멘, 함부르크, 쉘레스비히-홀스타인, 맥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州)의 지역임무	S 30 도로교통안전
S 11 도로교통기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건설	S 21 니더작센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의 지역임무	S 31 도로교통법(개인의 도로교통허가), 운전교사법
S 12 건설계약제도와 고용위탁제도	S 22 바덴뷔템베르크, 라인란트팔츠와 잘란트주(州)의 지역임무	S 32 도로교통규칙
S 13 도로건설에서의 환경보호	S 23 바이에른 과 헤센주(州)의 지역임무	S 33 자동차기술(자동차안전)
S 14 도로건설연구, 국제적 협력사업, 교통정책적 협력, 연방도로청	S 24 작센, 작센-안할트와 튀링엔주(州)의 지역임무	S 34 자동차기술(환경보호)
S 15 도로건설법, 도로행정, 휴게소, 교육	S 25 도로건설재정	S 35 도로교통법(도로교통을 위한 자동차허가), 요금법, 연방자동차운행청
S 16 건설계약과 고용위탁제도의 법률문제, 공동사용, 관리 · 감독법, 교차로법, 토지취득	S 26 민간자금조달, 도로건설에서의 특별프로그램과 혁신	S 36 영업상의 도로화물교통, 사회명령, 연방화물교통청(BAG)
S 17 도로건설기술	S 27 유지 · 보존과 도로업무서비스, 고속도로전신전화망	S 37 영업상의 도로개인교통
S 18 다리, 터널과 특별 엔지니어 건축물		S 01 도로건설영역에 있어서의 결정적 임무,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州)의 지역임무
		S 02 도로교통영역에서의 결정적 임무

홍 강 훈

(독일 주재 외국법제조사원)